

해외건설 동향과 전망

신삼섭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연구위원. shins@icak.or.kr

해외건설 수주 회복세가 완연하다. 2018년 1~8월중 해외건설 수주액은 204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2.3% 증가하면서 2014년말 유가급락으로 촉발된 해외건설 수주 감소세가 2017년 상승 전환한데 이어 금년에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건설 재도약을 위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회복세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통적인 수주 텃밭인 중동의 인프라 발주가 기지개를 펴는데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 확대, 세계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년 8개월간 해외건설 수주는 지역별로는 아시아, 공중별로는 토목 및 건축에서 전년 동기 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총수주액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에서 115억달러 수주로 전체 실적 상승 주도

지역별로는 중동에서 69억달러를 수주하여 전년동기 보다 약 25% 줄어들어 금년 8월까지의 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34%에 그친 반면, 아시아에서는 115억달러를 수주하여 전년동기 16% 증가하였다. 금년 8개월간 총 수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중남미, 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은 수주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년보다 약 133% 증가하여 전년의 극심한 부진을 탈피하는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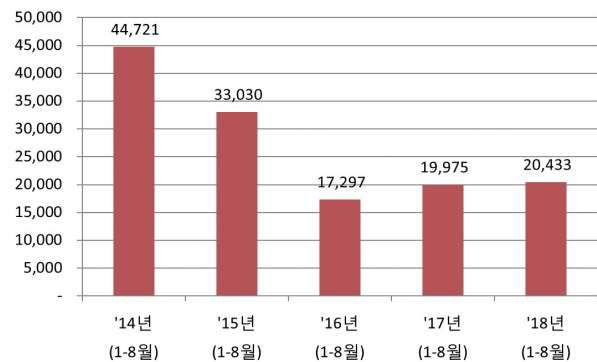


그림 1.

표 1.

(단위: 백만불)

구분	2014(1~8월)	2015 (1~8월)	2016(1~8월)	2017(1~8월)	2018(1~8월)	
					수주액	2017년대비
합계	44,721	33,030	17,297	19,975	20,433	102.3%
중동	25,920	11,734	5,529	9,155	6,892	75.3%
아시아	8,895	15,087	8,022	9,925	11,525	116.1%
북미·태평양	2,588	1,391	1,361	87	251	288.9%
유럽	1,162	71	352	297	395	132.9%
아프리카	560	633	580	278	670	240.6%
중남미	5,565	4,111	1,451	233	701	300.9%

▣ 토목 및 건축 비중이 44%로 증가하며 플랜트 집중도 완화

금년 1~8월중 플랜트 수주액은 약 105억달러로 전년 동기비 약 25% 감소한 반면, 토목 및 건축은 각각 46억달러, 45억달러로 전년 동기비 각각 36%, 145% 증가했다. 총 수주에서의 공종별 비중은 플랜트 51%, 토목 22%, 건축 22%로 전년 동기의 공종별 비중(플랜트 70%, 토목 17%, 건축 8% 등)과 비교시 플랜트 집중도가 완화되었다. 이는 플랜트 공종 위주의 수주가 많은 중동에서의 수주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2.

(단위: 백만불)

구분	2014 (1~8월)	2015 (1~8월)	2016 (1~8월)	2017 (1~8월)	2018(1~8월)	
					수주액	2017년대비
합계	44,721	33,030	17,297	19,975	20,433	102.3%
토목	3,527	5,252	4,931	3,357	4,575	136.3%
건축	2,959	5,872	3,457	1,822	4,467	245.1%
플랜트	36,246	19,456	7,631	13,921	10,483	75.3%
전기	611	583	587	344	257	74.9%
통신	183	24	3	-	16	-
용역	1,194	1,830	684	558	636	1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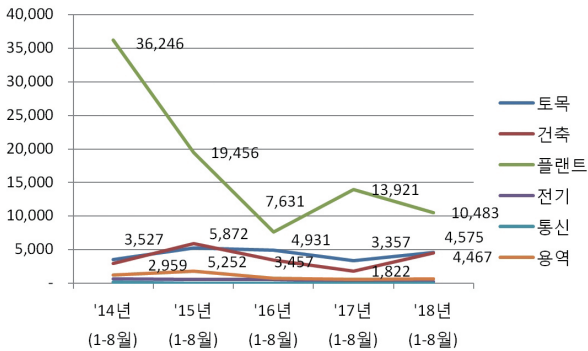


그림 2.

표 3.

(단위: 백만불)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1~8월)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도급형 공개	30,582	46%	22,243	48%	11,588	41%	18,221	63%	10,799	53%
도급형 공개	15,059	23%	3,980	9%	8,654	31%	3,281	11%	5,152	26%
도급형 공개	18,202	28%	18,567	40%	7,853	28%	5,861	20%	3,805	19%
(소계)	(63,843)	(97%)	(44,790)	(97%)	(28,095)	(99%)	(27,363)	(94%)	(19,756)	(97%)
개발형	2,168	3%	1,355	3%	98	1%	1,643	6%	678	3%
합계	66,011		46,145		28,193		29,006		20,434	

(*) '14년~'17년은 연간 실적, '18년은 1~8월간 실적을 기준 비중임

▣ 동남아는 베트남, 싱가포르 등 5개국이 상위 10대 수주국에 포함되며 강세

국가별로 보면 중동은 UAE에서 47억달러, 사우디에서 10억달러를 수주하여 각각 상위 10대 수주국에 포함되며 체면치레하였다. 동남아시아에서는 31억달러를 수주한 베트남, 17억달러를 수주한 싱가포르 등 5개국이 10대 수주국에 포함되면서 2018년 8개월 동안의 해외건설 수주를 주도하였다.

(단위: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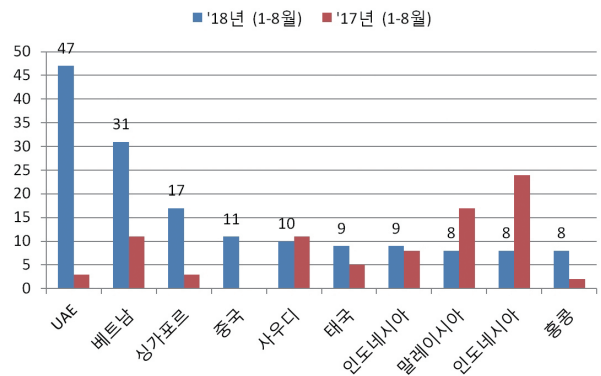


그림 3.

▣ 도급형공사 비중이 97%로 압도적이며 개발형공사 비중은 3%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

도급형 공사 비중이 97%를 차지한 가운데 도급형 중에서도 공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방식 비중의 합계가 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반면, 도급형 수의계약을 통한 수주 비중은 2015년 40%에서 금년 8개월간은 19%로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몇 년간 발주처가 경쟁방식을 통한 사업자 선정에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한편, 개발형 공사 비중은 3%에 그쳐, 최근 해외 시장에서 PPP 사업등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개발형 공사 참여 확대가 강조되고 있음에도 우리 기업의 개발형 공사 참여는 여전히 부진한 양상이다.

▣ 금융조달 원천별 수주 비중은 발주처 자체예산 비중이 총수주의 77%인 161억달러

발주처 예산을 재원으로 한 공사의 수주액이 161억달러로 전체 수주의 77%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시공사 금융의 경우 3%에 그쳐 2017년 해당 비중이 이례적으로 21%까지 치솟았던 경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발주처가 공사재원 조달시 시공자의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하나의 뚜렷한 추세로 자리잡고 있으므로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재원조달 능력을 강화시켜 가야 할 것이다.

그 외 그룹자체공사 비중이 12%를 차지하여 그룹 계열사의 해외 투자증대로 인한 해외공사수주 증가 효과가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도급형 공사비중이 97%를 차지하여 직전 4년간의 비중인 94~99%와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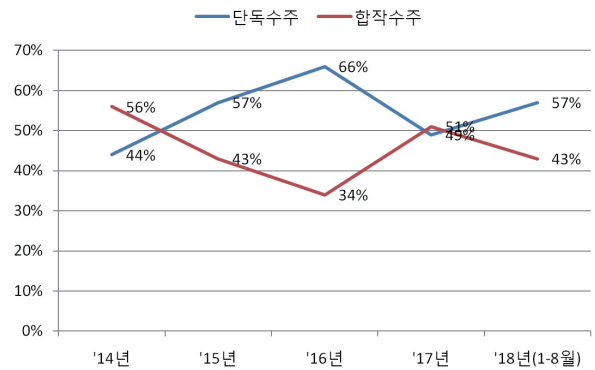
▣ 합작수주 공사의 비중은 2014년 56%까지 상승후 금년은 43%로 축소

합작을 통한 공사수주는 금년 8개월간 90억달러로서 총 수주의 43%에 그쳐 2013년 일부 대기업이 해외건설에서 대규모 손실을 겪으면서 2014년 56%까지 높아졌던 합작수주 비중이 2015년부터 단독수주 방식보다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1~8월)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발주처예산	53,877	81%	37,545	81%	23,669	84%	17,506	60%	16,071	77%
시공사금융	6,904	11%	3,291	7%	1,119	4%	6,124	21%	601	3%
그룹자체	2,459	4%	2,567	6%	2,121	7%	957	3%	2,369	12%
ODA	603	1%	1,387	3%	1,186	4%	2,867	10%	715	5%
개발형	2,168	3%	1,355	3%	98	1%	1,549	6%	678	3%
합계	66,011		46,145		28,193		29,006		20,434	

(주) '14년~'17년은 연간 실적, '18년은 1~8월간 실적을 기준 비중임



(주) '14년~'17년은 연간 실적, '18년은 1~8월간 실적을 기준 비중임

그림 4.

▣ 기업별로는 수주액 상위 10대기업이 176억달러를 수주하여 총 수주의 86%를 점유

2018년 1~8월중 수주액 상위 10대기업은 해외건설 전체 수주액의 86%에 해당하는 176억달러를 수주하여 전년 동기의 수주액 상위 10대기업의 수주액 179억달러 및 전체 수주대비 비중 89.5% 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 기업별로는 금년 1~8월중 중동에서의 대규모 공사 수주에 힘입어 총 54억달러를 수주한 삼성엔지니어링이 우리 기업중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단위: 백만불)

구분	'17년(1~8월)		'18년(1~8월)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수주 상위 10대기업	17,882	89.5%	17,621	86.2%
기업 전체	19,975		20,433	

▣ 2018년 연간 수주실적은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

2018년 전체로 볼 때 해외건설 수주는 2014년 유기급락과 함께 침체기에 접어들었던 해외건설이 2017년 반등한데 이어 금년 8개월간의 실적도 전년실적을 상회하고 있어 2018년 연간 기준으로도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보는 배경으로는 첫째, 금년 및 내년 3.9% 성장이 예상되는 세계 경제의 호조로 각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둘째, 주요 산유국의 석유 감소합의 지속과 세계 경제회복으로 국제유가가 70달러대를 넘어서면서 중동 등 주요 산유국의 재정수입 증대로 그간 발주를 취소 또는 연기하였던 프로젝트의 발주 재개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SOC 및 주택경기 변화에 따른 사업물량 부족으로 주요 기업이 해외수주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건설 수주에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중동 지역의 정세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이란 핵합의 탈퇴선언에 따른 갈등 고조 및 터키 금융위기 등이 있다. 또한 미국의 금리인상 가속화에 따른 세계적인 금융긴축 기조로 자금조달 어려움의 가중 및 금융비용 상승은 인프라 투자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해외건설 시장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해외건설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기업 자체의 수주 네트워크 및 영업활동 외에도 다양한 지원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의 맞춤형 건설외교 지원 확대, 코리아 컨소시엄을 통한 공기업과 민간기업간 협력 강화, 수출 금융 등 다양한 정책금융 지원확대 등이 그것이다.

상황이 녹록치 않지만 기업과 함께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등 해외건설 유관기관이 힘을 모을 때 기업의 수주 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18년도 이제 3개월 남짓 남겨둔 지금 심기일전하여 금년 해외건설 수주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길 기대해본다.